



청소년의 참여는 세상을 바꾼다.

이지양(양산YMCA 사무총장)

청소년과 함께, 평생 철들지 말자

프롤로그 | 블로그 | 포토로그

지도 | 서재 | 앱스 | 메모 | 태그 | 안부

이 지 양

양산YMCA 사무총장  
 양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위원  
 경남 청소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경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YMCA 청소년위원회 위원  
 양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아동&청소년복지론 출강

나는 감사빠입니다.





"고맙습니다. 마흔 넘은 어른은 솔직히 여러분과 눈 마주치며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할 어른들이 사과를 안 했기에 여러분이나 살아남은 저희들은 죄책감의 칼날을 견뎌야 합니다. 짓궂으면서 살 거고, 입 다물고 닥치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할 기회가 늘어나니까요. 제가 가진 마이크는 제 말이 아닌 여러분들의 말이 전해질 도구이자,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 선배들의 말이 전해질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뭘 하겠다'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치워놓고 여러분께 방해가 되지 않게만 하겠습니다. 한없이 미안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대신해서 해주기에 한없이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밥 잘 먹고 다니십시오. 고맙습니다."

## 번개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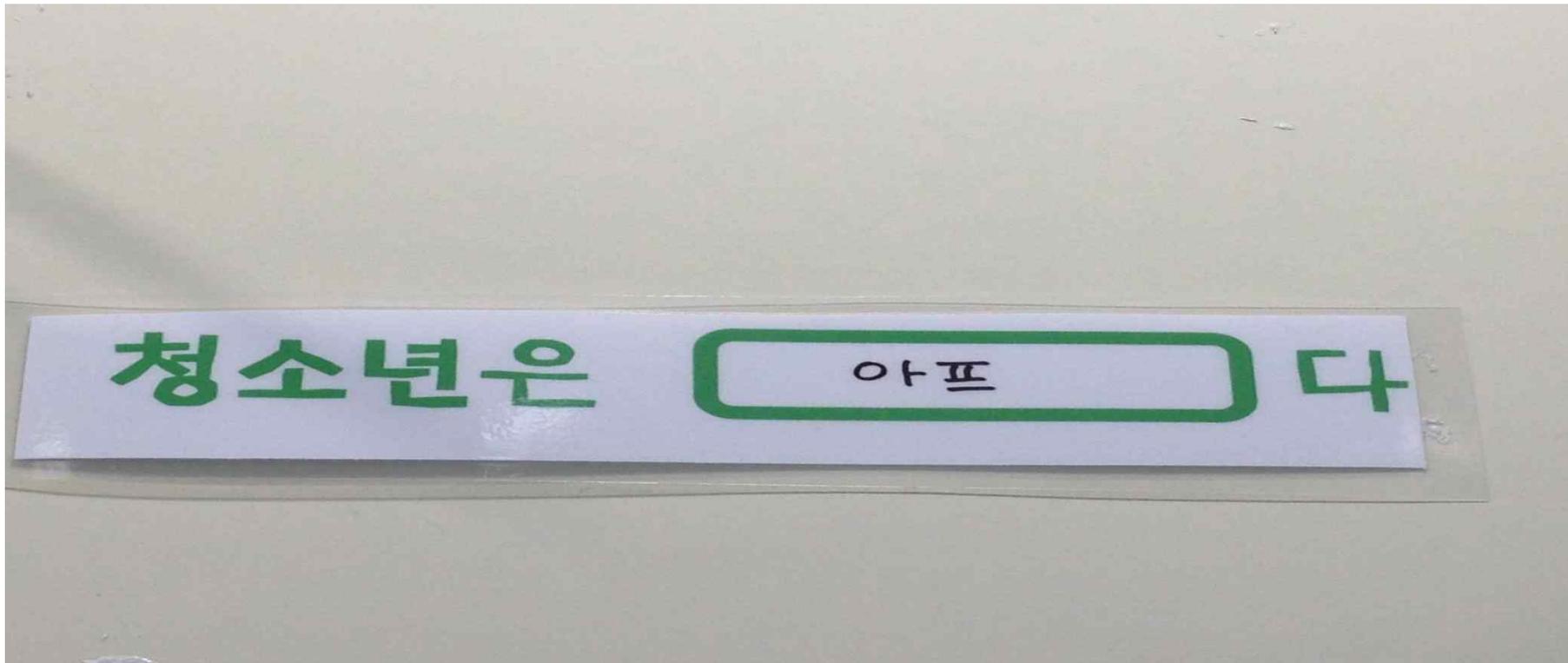
---

청소년은 다.

# Why 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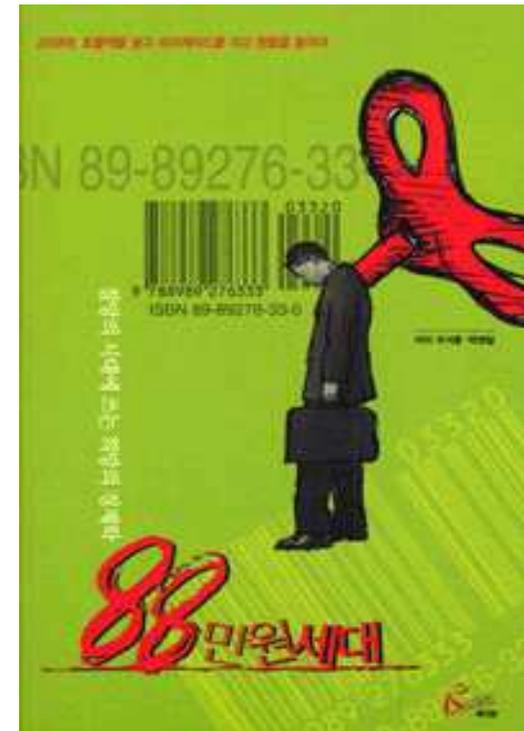
# Why Youth?



# Why YOUTH?



**Why YOUTH?**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들의 두발의 자유가 없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머리에 대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소수자' 혹은 '경제적 약자'이다.** 이 집단은 스스로 독립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수준에 **자신의 머리 모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도 갖지 못한 집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



## YOUTH?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다크서클 노동자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은

어린이를 위한다는 학교와 학원, 부모의 간교한 주문을 물리치고 지금 당장 행복한 어린이를 위해 노래한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출처] 어린이 해방군 총 사령관 방구뽕,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미있고 묵직한 메시지작성자 하임당



(아이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부산의 빵 성지순례지 중 하나인  
OPS빵집 인기품목



- 여전히 더 심해지는 입시경쟁으로 청소년을 내모는 사회
- 그리고 대규모 수학여행으로 가장 값싼 선실에 묵었던, 그래서 가장 많이 죽어간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약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와 자본을 비판하며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서 가만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중, 고등 학생들로 구성 된 청소년 YMCA전국대표자회의, 안산 청소년 YMCA, 한국YMCA 전국연맹은 10일 오후 3시부터 안산시 화랑유원지 소공연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다짐을 위한 청소년 YMCA 회원대회'를 개최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학생 수백명은 이날 대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친구들을 잃은 청소년들의 입장문'을 통해 "지금도 우리는 밝게 웃던 친구들을 보고 싶다"며 "너희들을 희생시킨 사람들을 찾아 꼭 진실규명을 하게,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땐 좀더 좋은 세상에서 만나자"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 시위는 나쁜 짓이다??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15조>





**“모험과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 프로그래밍된 유년기와 자기절제력을 상실한 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급증하는 현상 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 크리스 메리코글리아노,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

## 학교에서 배운 것

유 하

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런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청소년이 시민입니다.**  
**= 청소년시민사회론**  
**= 교복입은 시민, 청소년**



“청소년시민사회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유엔아동권리협약”





< 4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 >



## Why Youth Movement?

청소년운동을 이끄는 주체인 민주시민, 청소년

---

청소년운동은  
청소년 다수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자신들의 삶이나 주어진 삶의 제반 조건과 환경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확대 전개해 나가는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개입 Intervention

발달 Development

집단적 권한 부여 Collective Empowerment

체계적 변화 Systemic Change

전략

청소년 서비스  
Youth Service

청소년 개발  
Youth Development

리더십 개발  
Leadership  
Development

청소년 시민 참여  
Youth Civic  
Engagement

청소년 조직화  
Youth  
Organizing



서비스 이용자



참여자  
수련생/직원



참여자, 리더,  
수련생/직원,  
위원회 위원



리더,  
수련생/직원,  
위원회 위원



구성원(회원), 리더,  
조직가, 수련생/직원,  
위원회 위원

청소년의 역할

'청소년 개발'의 요소  
그리고(+)

'청소년 개발'과 '리더십  
개발' 요소 그리고(+)

'청소년 개발', '리더십  
개발', '청소년 시민  
참여' 요소 그리고(+)

활동

- 청소년의 개인적인, 병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치료 및 예방관련 프로그램 설치

※ 필요로 되는 역량 및 기술이 없으며 직접행동 혹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안전한 공간과 자원 제공
- 성장과 발달 기회 제공
- 연령에 맞는 지원
- 개인역량의 함양
- 긍정적 자아정체감 강화
-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 사람들과의 파트너십 지원

※ 필요로 되는 역량 및 기술이 없으며 직접행동 혹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프로그램과 단체내에서 진정한 청소년 리더십 발휘 기회 조성
- 자신의 경험과 지역사회 사안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기록 지원
- 의사결정자이며 문제해결자로서의 역량 형성
-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 정치교육 참여와 자각
- 권한 분석 및 청소년이 규정한 사안을 위한 행동에 필요한 역량 구축
- 청소년을 사회적 변화 매개자로서 인식하는 집단 의식 형성 지원
- 권리 옹호와 타협에 대한 참여

- 기관 및 단체의 회원으로서 멤버십 획득
- 핵심 직원 혹은 지배적 관리 운영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 정치적 직접 행동에 대한 참여
- 연대에 대한 참여

2018. 월산초 5학년 어느반에서.



# 의견 존중

이제부터는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월산초 5학년 어느반에서.





**배고프** 당이  
해결해드립니다.

1. 교내 매점 설치
2. 자율 배식
3. 무사 간식
4. 학생 식당 결정권 부여
5. 급식실 관계자 **SNS** 금지 

기호

16 기모쭈 ~ 

미양동명고,  
건오동명고,  
같이 어게스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 <탄핵전문당>

1. 선생님들의 임기 기간을 학생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교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3. 선생님들의 교내 흡연을 철폐하겠습니다.
4. 회장의 부정 부패를 엄벌하겠습니다. (기소 ^^)

2.     
  



선거의 한 표가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의  
결심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뽑는  
6.13 지방선거  
경남 교육감 및 도지사

양산시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www.18vote.net 실시간 온라인 투표  
청소년선거인단 신청 후 6월 13일 오  
주최 6.13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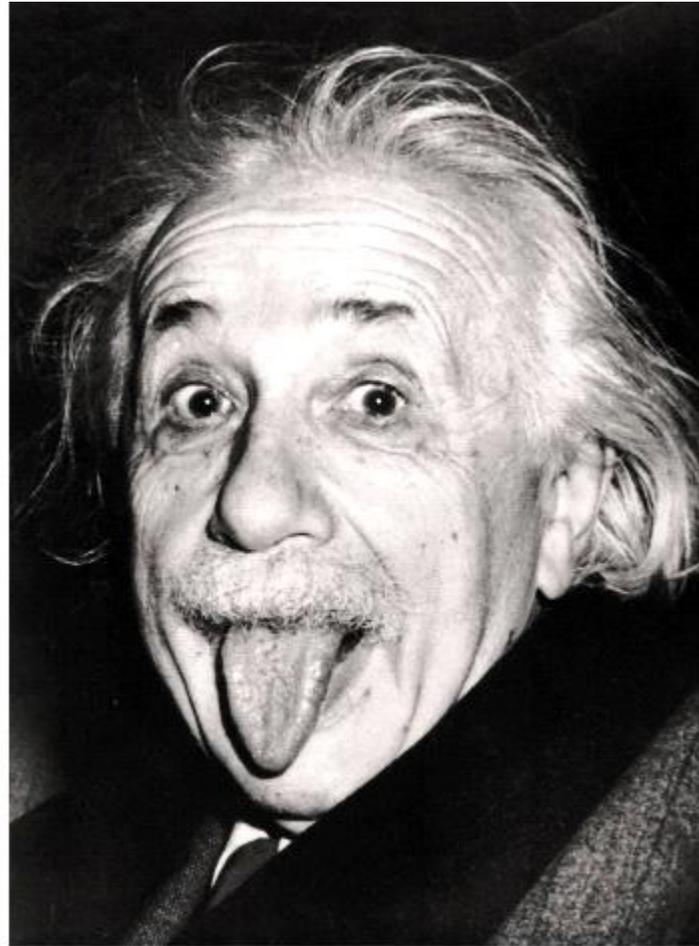


---

청소년은 진화가 준 선물이다.

인류가 진보해 온 것은 “심각하고 책임감 있고 신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희적이고 반항적이며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 톰 로빈슨

---



사진출처 © [www.albert-einstein.ru](http://www.albert-einstein.ru)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형 참여증진 모형 개발연구

## 1. 지역사회프로젝트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참여하다.

C: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행사하는거 너무 좋아가지고 얼떨결에 지역 부회장 맡게 되가지고 동령회 준비위원회 이런 것도 참여하다가 만18세 참정권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YMCA가 좋아서 열심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I: 연간계획을 짤 때 참여예산제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전부터 선배들이 계속 해왔으니깐 당연히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왔던 거니깐 당연히

N: 저는 조례만드는 청소년 이전에 2017년 11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창원 상남동에서 학생인권문화제를 여는 단체가 있었던 말이에요. 경남청소년인권행동 준비위라고, 그 단체가 한 첫 번째 집회에 갔다가 청소년인권에 대해 알고 좀 아 재미있겠다 싶어서 같이 준비하다가, (중략) 경청행은 해산이 되었고 그 뒤에도 경청행이었던 사람들이 경남에서 창원, 진주 이렇게 운동을 그냥 짜잘하게 하고 있었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할지도 모른다.(중략) 그럼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 운동에 청소년당사자도 꼭 들어가야 된다. 회의해가지고 그러면 촛불시민연대 그거 만들어지면 우리가 분과로 들어가자. 분과이름을 조례 만드는 청소년이라고 짓고 청소년들을 모으자 이래서 어쩌다 보니 빨리 들어갔어요.

## 2.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첫인상 - 이게 뭐지? 딱 이런생각

---

A: 음.. 생소했다고 해야 하나. 일단 저희는 스무살이 되고 생일이 지나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깐 어? 18세에게 참정권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H: 지도 비슷한데. 참여예산제라는 말이 생소하고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깐 이거 뭐하는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딱 그 생각. 이게 뭐지?

P : 저는 과연 이게 될까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냥 청소년운동을 계속 해오다보니까 너무 실패하는 경험들이 많아서. 음.. 그래서 과연 이것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같이 조례운동 하는 주변사람들이 이번에는 진짜 될꺼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반신반의하는 (중략)

### 3. Y에서 너무 많이 해 본 캠페인... 先경험이 쌓여있다.

I: 이거하기 전에 위안부 캠페인도 했었고 여기 자체에서 하는 사회참여가 많아서...

L: 생각보다 청소년참여예산제가 하반기에 진행되어서 상반기에는 캠페인도 많았었고, 봉사활동도 있었고... 위안부캠페인은 항상 하는 거였고, 세월호, 환경관련 캠페인도 있었고.

N: 17년 말부터 18년 6월쯤까지 경청행 했구요. (중략) 경청행 해산후에 계속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수나로에 들어가서 뿔뿔이 지역에서 공부모임하고 토론회하고 체벌 거부사업 2019년 초까지 하고 했어요.

#### 4.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쌓은 기술과 역량 1 ; 숙제 검사하듯이 완벽한 대본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다.

---

L: 부장님이 대본 짜와라. 대본 짜오고 나한테 와서 검사를 받아라 그러면 막 아이스브레이킹부터 다해요. 혼자 원맨쇼처럼. 오늘은 이렇게 할꺼고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처음소개부터 아이스브레이킹하고 토론회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중간중간 애들이 안 적으면 그런 대사들까지 다 적어서, (중략)이런 세부적인 것 까지 다 대본으로 짜서 부장님께 가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H: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그러고 나서 교육을 두 번 정도 했었나. 처음에 이런거다 설명해주면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끼리 해보라고 해서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검사 받고. 해보는게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I: 부족한게 없었던게 부장님이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라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하고 그 예시를 항상 던져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 5.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쌓은 기술과 역량 2 ; 사전교육은 중요하다.

---

A: 전 교육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운동을 해라 이런식으로 입을 벌리고 과자를 먹여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과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과자를 먹은 느낌이었던거거든요. 그래서 사전교육이라 하면 정치적 그런 교육 조금 해주셨으면 제가 더 잘 알고 그거에 대해 열심히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중략)

B: 어려움을 보면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입장이랑 이걸 받는 일반 시민들을 보면, 우리도 이 친구 말처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캠페인 이라는게 사탕에다가 뒤집어 보면 종이에 작게 적혀 있었잖아요. (중략) 우리도 교육이 많이 안돼서 아쉬웠죠. 어떤 친구는 잘 알지만 어떤 친구는 잘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잘 모르겠고 사탕을 이만큼 하라는데 어떻게 30개를 다 주어야 할 지 모르겠고 그런게 있었고. 받으시는 일반 시민 분들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권리가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하니깐 사탕을 줘서 좋긴 한데 어..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가고 그런 게 있었죠.

## 6.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쌓은 기술과 역량 3 ; 모의시연을 통해 가진 자신감

---

I : 확실히 저희끼리 한 번 해보니깐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편하고, 나중에 영천이나 하령회 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다 처음일 때 저희가 먼저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불편해요 라고 제안 할 수 있었고.

## 7.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쌓은 기술과 역량 3 ; 모이면 기본 5-6시간이 걸리는 박센 회의

---

L: 아이스브레이킹도 예전꺼 하지 말라고 얼마나 압박을 하시던지(모두들 웃음). “이건하면 안돼요” 하면 “그건아니다” 라고, “그럼 뭘해야 하나요” 하면 “니가 생각해보라고“. (부장님이) 아이스브레이킹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거예요.

I: 그거 말고는 조 몇 명 넣을지, 조마다 누구 들어갈지, 그리고 진행순서 이런거 정하고, 포스트잇은 몇장이 필요한지.

H & I: 기본회의를 보통 2시에 모이면 5~6시간을 회의하고 생각하고.

## 8.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쌓은 기술과 역량 4 ; 무작정 강요에서 고급스킬로 진화하는 홍보기술

C: (중략)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간사님이 학교에 공문 이렇게 해서 학교에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반마다 들어가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양산은 어떻게 홍보했냐 하면 저희가 가장 잘하는 피켓 만들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소리를 치면서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D: 진정한 공부는 투표다. 참정권이랑 같이 많이 얘기하는 가장 반대하는 것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투표에 관심을 가지냐’. 가장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구였던 거 같다.

H: 회원들이면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했으니깐 학교 회원들은 인원이 어떤식으로 왔다 이게 되는데, 학교 회원이 아닌 경우는 뭘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SNS를 통해 홍보를 했어요.

L: 회원 아니더라도 회원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봉사시간 준다고 꼬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끼리도 경쟁이 있는거예요. 우리학교가 적으면 괜히 밀리는 느낌이고. 그러니깐 좀 와쥌와쥌하고. 어디학교는 몇 명인데 하고. 임원들끼리도 재촉을 하고.

## 9. 청소년단체활동을 하며 정치교육을 접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다.

L: (중략) 저희가 1학년 때 정치적으로 많은 일이 있어서 그거에 관심이 가서 그걸 하겠다라고 들어오게 되었고. 들어와 보니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세월호도 위안부도 몰랐던 부분을 Y를 통해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처음에는 뉴스나 이런 것 밖에 안봤었지, 참여하거나 이런걸 찾지도 못했었고 기회도 없었었고. Y를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있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걸 배웠던 것 같아요.

D: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청소년들 자체를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를 나눈다고 하면 미래세대들한테는 정치를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택과목이에요. 그게 유일하게 정치에 대해 알려주고 당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과목인데 불구하고 그냥 선택과목으로 되어있고 안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략) 투표를 하면 50~60대 투표율이 제일 높잖아요. 청년들은 투표율이 낮는데 기성세대들은 정치가 곧 일상이었잖아요.

## 10. 청소년의 자각(awareness) : 이제는 불편한게 눈에 보인다.

A: (중략) 하긴 공부하는 건 나인데 왜 교육감을 어른들이 뽑지? 약간 이런 생각이 교육을 받다 보니깐 들더라구요. 그래서 신기하여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정권)운동을 하게 되었고.

O: 예를 들면 체벌같은 경우는 보통 엄마아빠에게 맞았다 하면 다들 대게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알고 보니 그게 당연한게 아니었고 저는 오빠에게 맞은 경우도 있는게 그것도 당연한게 아니었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또 두발 복장검사 하잖아요? 그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래도 되는 걸줄 알고 별 생각없이 살았는데 그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선생님이 학생들 화장품 썼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죠. 선거연령하향도 그랬구요. 다 충격적인 일이었던 같아요. 저한테는..

O: 제가 그때 당시 조례안초안을 TF에 들어간 청소년활동가를 아니까 읽어봤는데 눈물 흘렸거든요. 그안에 있는 두발 복장규제 금지 조항도 그렇고 학교안에서 폭력적 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도 울었고, 차별금지조항도 그런 것도 그렇고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 삶에 적용되는 거니까.

## 10. 청소년의 자각(awareness) : 이제는 불편한게 눈에 보인다.

P: (중략) 그런게 대게 신기했는데 알면 알수록 불편했던 것들이, 그렇게 하면 알고 난 다음부터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말하면 “저거 안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저러면 불안한데” 이거 활동가 같이 있었으면 내가 한소리 하겠는데 못참겠다.

H :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저는 진짜 관심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약간 이런걸 알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니깐. 그 다음에는 관심 높아지고

L: 치안 문제 같은게 생겨서 구미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아니면 도둑이 들었다 이러면 그런 지역에 대해 조금 더 보게 되고 CCTV가 없었나 그런 생각이 나는거예요 가로등이 문제인가 순찰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자세히 보게 되는

I : 구미시에 바라는게 많아졌어요. 이런 제도가 솔직히 저희만 알고 있잖아요. 하는 사람만 알고 소수만 알고 있는데. 진짜 그냥 홍보를 너무 잘 돼서 시민들이 다 참여하면 더 발전할텐데 왜 그게 안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J: 금오산 올라가면서 동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참여예산제하고 난 후였어요. 어 왜 저기에 동상이 세워져 있지, 저거 동상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지 하고, 저 돈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하고

## 11. 청소년의 권리는 내가 찾는다.(advocacy)

---

I: (중략) 저희 아빠도 시에서 해주냐고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거 아니냐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활동만 하는거라고 근데 부장님이 이거를 결과를 저희한테 다 말해줘요. 뭐는 컨택이 됐고 뭐는 뭐 때문에 안되고. 제가 그걸 엄마한테 저도 너무 신기해서 말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저번에 버스 하나가 연장 됐었나 노선이 추가 됐나 그랬었는데 가로등도 다 고쳐지고 그게 저희 집 밑이었거든요. 가로등 고쳐진게. **엄마한테 밑에 가로등 고쳐진거 내가 낸 의견이라고 그러니깐 저희 엄마 아빠도 형식적인 줄 알았는데 진짜 되는거 보니 신기하다고..** 약간 기특해 하셨던 것 같아요.

L: 그냥 야자나 하지 왜 이걸 갈려고 하냐? 저는 가야 합니다 하고. 굳이 선생님을 붙잡고 설명을 해봤자 부정적인 반응밖에 못 받아서. 공부가 너네가 더 중요하지 뭐 이런식인 대화가 있었어서. 그리고 친구들이 더 신기해했었어요. **저희가 신나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의제를 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니깐 끝나고 그게 되냐고 이런식으로 반응이 오고 관심 없던 친구들도 그런 걸 들으면서 아 그런게 있구나.**

## 12. 청소년은 익숙한 불편함, 어른들은 무심해서 생긴 힘의 불균형을 깨닫다. (권한분석)

---

I: 다른 곳을 갔잖아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게 다 비슷하다는게 신기해요. 청소년들은 너무 한정적이니깐 불편해 하는 게 나오는 의견은 다 비슷하니깐

H: 놀 곳이 부족. 버스가 많이 없다. 가로등이 없다.

H: 버스나 가로등은 매년 나오는데, 같은 지역에. 바뀌지 않은. 어른들은 차가 있고. 낮시간에 움직일 일이 없고. 매번 얘기하지만 시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고...

K: 문화의 날을 일요일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새로웠고.. 늘 생각하고 있던거랑 진짜랑 했을 때 거의 다 똑같고. 새로운 의견이 생각보다 없었는데 시는 왜모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 13. 청소년은 지역 사회변화의 매개자이다. 지역사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I: 차라리 나라일은 바뀌면 뉴스라도 나오잖아요. 뉴스가 나오면 시민들이 아는데 구미는 이렇게 바뀌도 아무 통보해주는게 없으니깐 뭔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뭐가 없어지는지도 모르는.

L: 이번에 전국체전 한다고도 송정동 도로 다 갈아엎고

I: 알려면 같이 알자. 돈쓸꺼면 같이 알자.

P: 정우상가에서 촛불시위를 한적 있어요. 딱거는 뭔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게 제일 확 생각이 났는데 제게 왜 인상깊었던 일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여기있다는 목소리가 앰프를 통해 퍼져 나가잖아요. 그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게 크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버스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 14. 청소년 참여는 직접적인 정치행동을 동반한다.

D: (중략) 제 생각보다는 너무 큰 활동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디오 나가서 전화 연결을 할 줄 몰랐거든요. 학교 앞까지 기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인터뷰하고 지하철에서 인터뷰하고 이런 걸 전혀 할 줄 몰랐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거절은 할 수 없는 제가 뭔가 활동을 하고 있고 나밖에 이런 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L: (중략) 그때 구미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게 아닌데 묻는 질문들이 이거 예산안을 세울 때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깐. 그거에 대한 정보력이 없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정보력이 없으니깐 쓰레기통이 얼마지 하고, 태양열이 얼마지, 자전거 세우는거 얼마지 이런 거를 숙지를. 얘기를 하는 거는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짤 때 그 가격에 대해서 무지하다보니깐.

P: 정우상가에서 촛불시위를 한적 있어요. (중략) 거기서 제가 발언을 몇 번씩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구요. 그리고 집회 분위기가 항상 좋았는데 다들 못해도 다독여 주고 그런게 있었으니까

## 15. 청소년은 조직체의 핵심지도력으로 성인지도자와 동등한 관계형성을 시도한다.

D: 너무 공감하는 것이 저도 많이 싸웠다.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권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B: 쌤이라고 편하게 부를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활동하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에서 응원을 최대한 많이 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하든. 못하든 활동하는 것에서는 정답이 없잖아요. (중략) 그래서 저도 담당 선생님(단체 실무자를 의미함)이랑 3년 정도 했는데 계속 싸웠다. 만날 때부터 싸우고 계속 싸우고 다시 보지 말자고 싸우고 근데 다음날 회의가 있다. 그럼 다시 회의 때 보고 화해하고 완전 투닥투닥해서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먼저 태어난 것 뿐이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이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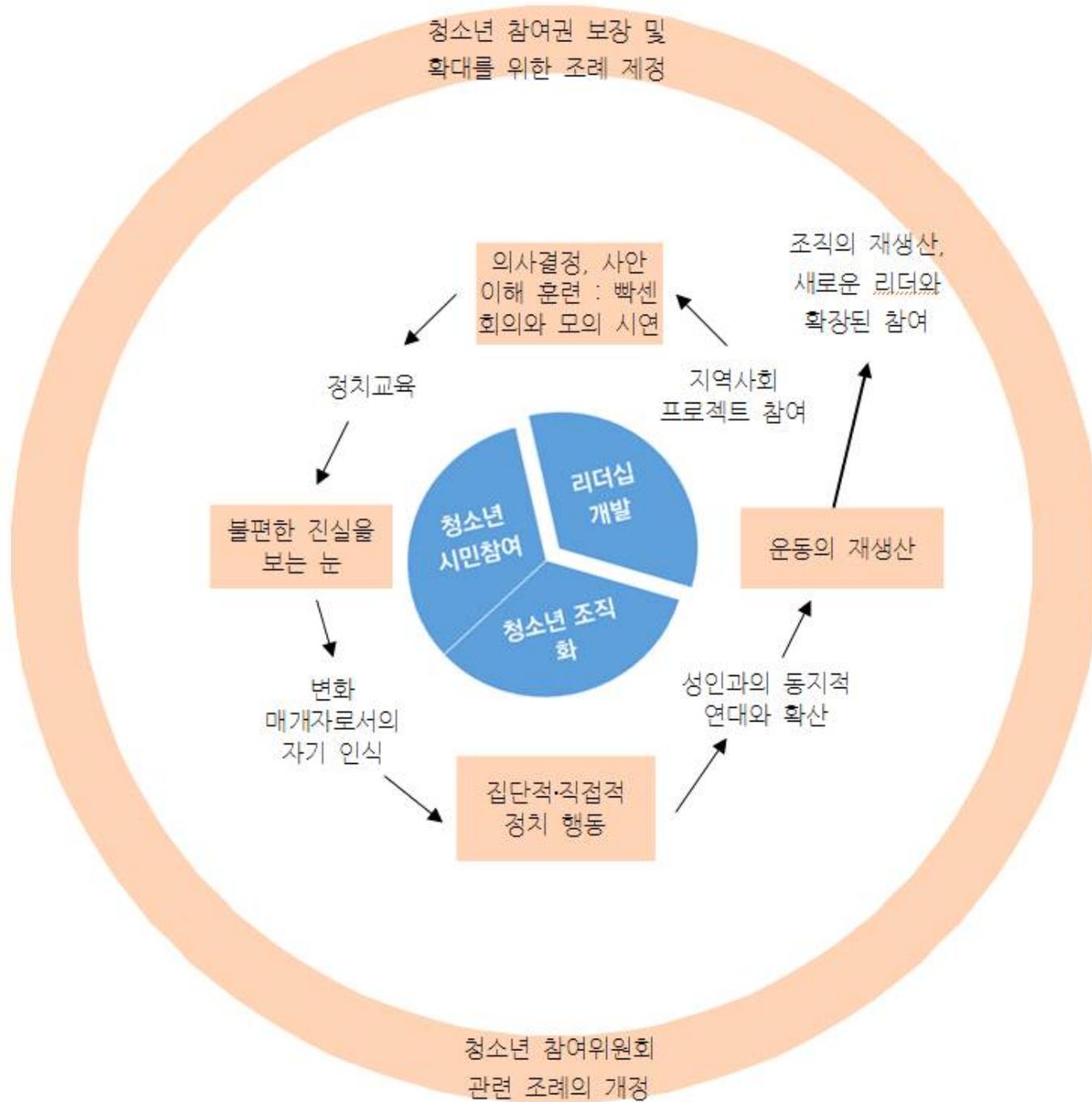
G: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되지만 동지 같은 역할을 했다. 아이들과 같이 성장한 것도 많고, 저희들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지만 중립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실무자들로 어렵고 반성 되는 시간이 많았다.

## 16. 연대로 운동의 확산을 도모하다.

G 내용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도 부산에도 12개 기관 중에 아이의 가치관에 의해서 참여를 안하겠다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강요를 안했었고, OK 한 센터의 친구들만 함께 했었는데 나중에 활동 적인 부분에서 홍보라던지 다른 친구들한테 교육이나 전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했죠. 이런 경험들이 없고 와이 아이들보다는 참정권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작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O: (중략) 최근에 11월달에 저희가 집회를 열었거든요. 조레만드는 청소년이랑 다른 단체들이 공동주최해서 같이 열었는데 거의 초청이 주축이 돼서 열었는데 (중략) 제가 그 집회에서 사회를 봤단 말이에요. 너무 정신이 없고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딱 뒷풀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M: 만약에 초청이 어린이 책 시민연대와 연대하듯 이런 느낌으로... 도와준다는 입장보다는 내가 오히려 이사람들과(조레만드는 청소년) 연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게 좋을 거 같아요.



청소년 참여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의사결정, 사안  
이해 훈련 : 박센  
회의와 모의 시연

조직의 재생산,  
새로운 리더와  
확장된 참여

지역사회  
프로젝트 참여

정치교육

불편한 진실을  
보는 눈



운동의 재생산

변화  
매개자로서의  
자기 인식

성인과의 동지적  
연대와 확산

집단적·직접적  
정치 행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 조례의 개정

## 1. 학생생활기록부 변화를 바라는 청소년들의 목소리(2006~2007)



<여수YMCA 청소년 자치포럼 참여학생들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생활기록부 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생들 요청에 따라 얼굴을 가렸음)>

여수지역 청소년들이 학생생활기록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수YMCA 청소년 자치포럼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생활기록부 작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과 교육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지역 청소년들이 학생생활기록부의 새 시대를 바라는 교육정책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부여됐다.

청소년 자치포럼은 설문조사 결과, 학생생활기록부 전반적 문제점이 있다고 84%가 응답했다며 작성과정에 대한 문제와 청소년 성적으로 인한 정보제공의 편차, 작성제한 등의 문제점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생활기록부? 잘 모르겠습니다’의 경과보고를 갖고 학생생활기록부의 새 시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7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청소년들 스스로토론회인 청소년자치포럼은 학생생활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먼저 성적으로 인한 학생들 간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성적차별금지법을 주장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탐색의 기회제공, 교내대회 참여 기록가능, 학생생활기록부 수정 및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른 외부활동 기입, 학급당 학생인원 축소와 복수담임제도 강화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정성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학생생활기록부 작성매뉴얼 제작 및 작성교육 강화와 공평한 정보 속에서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을 요구했다.

---

## 2022년 학생생활기록부??

---

1.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은 여전히 학생들이 하는가요?
2. 정규동아리가 아니면 자율동아리는 한줄도 적을수 없나요?
3. 봉사활동은 교내든, 교외든 한줄도 적을 수 없나요?

결국 대학은 성적순!!!

이런 활동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 봉사활동을 하는 인성따윈 필요없다는 거지요?



### 1. 양산YMCA 초아동아리의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 소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 초아 동아리가 봉사활동 시작 (2017년)

다른 청소년 동아리와 연대 제안 (2018년~)

2022년 영남하령회 주제로 “동물권” 제안, 결정

사지말고 입양하자는 지역사회 캠페인 전개

유기동물 굿즈를 판매 수익금을 유기동물 보호소에 전달

굿즈의 진화

자체 제작 스티커, 사진, 폰그립, 지비츠로 굿즈가 나날이 진화되고 있음



#### 4. 청소년시민사회론에 기반한 청소년운동 “이제는 청소년 정치세력화!!”

청소년수당을 받기 위한  
청소년들의 Action



# 양산시 기본소득 조례제정을 위한 2021 시민원탁토론

◆ 일시: 10월 23일(토) 오후 3시~6시 ◆ 장소: 양산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 ◆ 주최: 양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 주관: 양산YMCA





1. 청소년 기본소득은 \_\_\_\_\_ 다. <sup>50</sup>

청소년 기본소득은 청소년 삶의 행복을 위한  
보상이자 미래에 필요한 여유자금이다.

2. 청소년 수당을 받는다면 무엇을 할까?  
 

① 저금하기

② 필요한 것 구매하기

10000

③ 여가생활 하기 

3. 청소년 수당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①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 홍보한다. 

예) SNS 이용, 관련글 게시, 캠페인 활동, 서명운동, UCC 제작

②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 교육을 한다. 

③ 청소년 기본소득 공약한 후보 지지하기.

예) 투표참여,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6조 - 손채희, 고유빈, 송오영, 신예나  
강민주, 김태현, 정은채, 강정현 >

● 청소년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 문화생활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 청소년의 미래자금을 위한 저축 필요.

- 사교육비 저원 필요 (독서학원, 인강)

- 교통비 부담 감소.

● 이루기 위한 청소년들의 노력

캠페인, 교육, 의견제시 (청원, 청와대게시  
SNS 홍보)

⇒ 청소년 기본 소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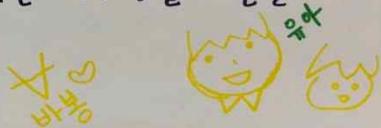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기금" 이다

# 1. 청소년에게 청소년수당이란?

: 여유이다. 왜냐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 2. 청소년수당을 받으면 나는 그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

: 여가이다.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는 여가활동을 마음껏 하지 못했지만 돈이 생긴다면 하지 못했던 여가생활에 돈을 쓸 것이다.



# 3. 실제로 청소년수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 캠페인, 서명운동, 편지, SNS와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필요성을 어필할 것이다.

청소년이 효율적인 소비 습관을 직접 실천할 것은 보여줌

# <2조>

청소년 수당은 청소년에게

"투자자본, 여유통  
나를 #가꿀기회, 낭비아 반전의칼림길"

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청소년 수당이 생긴다면

"저축, 주식, 덕질, 옷구매"

등을 할 것이다.

청소년 수당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서명운동, 집회, 청원, 대통령에게 편지 쓰기, SNS 홍보"

등을 할수 있습니다.

# [ 청소년 기본소득 ] 4조

< 1번 질문 : 청소년 기본소득이란? >

↳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란 "기회"이다.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란,  
완전히 관습적인  
변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 2번 질문 : 무엇을 할 것인가 >

책 (문제집)    의류    음식    저금    여행    건강

< 3번 질문 :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

① "극심포제인"

↳ "청소년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알라는 문이 필요함.

② "서명운동"

↳ 청소년들 역시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 청소년 뿐 아니라 어른들도 알려야 함.

③ "SNS 홍보"

↳ SNS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남김.

④ "청소년 동아리 개설"

1. 청소년 기본소득은 \_\_\_\_\_ 다. 5조

청소년 기본소득은 청소년 삶의 행복을 위한  
보상이자 미래에 필요한 여유자금이다.

2. 청소년 수당을 받는다면 무엇을 할까?  
 

① 저금하기

② 필요한 것 구매하기

10000

③ 여가생활하기 



3. 청소년 수당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①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 홍보한다. 

예) SNS 이용, 관건글 게시, 캠페인 활동, 서명운동, UCC 제작

②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 교육을 한다. 

③ 청소년 기본소득 공약한 후보 지지하기.

예) 투표참여,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6조 - 손채희, 고유빈, 송오영, 신예나  
강민주, 김태현, 정은채, 강정현 >

- 청소년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 문화생활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 청소년의 미래자금을 위한 저축 필요.
  - 사교육비 지원 필요 (독서실, 학원, 인강)
  - 교통비 부담 감소.

◎ 이르기 위한 청소년들의 노력

캠페인, 교육, 의견제시 (청원, 청와대게시판, SNS 홍보)

⇒ 청소년 기본 소득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기 2" 이다

7조

1. 청소년에게 청소년 수당이란?

- 나라가 주는 용돈
- 부모님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 여유와 안정을 줄 수 있다.
- 티끌 모아 태산 (저축)
- 개떡, 행복, 개골

10만원 주시여  
=> 계좌로 받기. 왜?  
"편하고 인터넷 결제 편리"

2. 청소년 수당을 받는다면 그걸로 우리는 무엇을 할까?

- 저축 (대학 등록금, 여행 등)
- 밥 먹기, 쇼핑 등 (품위 유지)
- 할링비 (고양이 용품, 효도, 집사기)
- 생활비 (교통비, 학원비, 문제집, 학용품)



3. 실제로 청소년 수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일까?

- 어른들 설득 (부모님)
- 청소년 수당 공론화 시키기 (청원, 카드뉴스, 캠페인 등)
- 청소년 수당을 이용한 계획과 책임 보여주기
- 사위, 항의, 청소년 파업, 대통령 설득 등



“

청소년 기본 소득은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용돈이다

“



**청소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쪽~~**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 참정권운동



(경남도민일보)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통령 양산운동본부는 5일 오후 5시 양산시 남부동 양산시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청소년 모의 직접투표 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양산지역 청소년YMCA 연합회, 물금고 학생회, 범어고 학생회, 양산여고 학생회 청소년 동아리 초아·라마·푸르미·바른봉사단·유아리너스 등 학생 30여 명이 참가했다.

# 청소년 모의투표운동





## 교육감선거 16세 참정권운동

청소년이 참여해야  
지역사회가 바뀝니다.